

한전 25조 규모 자구안 발표...“전기료 인상 불가피”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임금 반납 등...정승일 사장 사의 1분기 영업손실 6.2조원...오늘 2분기 인상폭 결정될 듯

38조원이라는 기록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부동산 매각 등을 포함한 25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자구안 발표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손실 해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2일 여의도 한

전센터 매각, 인력 혁신, 임금 반납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재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자구안을 내놨다.

한전은 지난해 약 20조원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정치권의 압박 속에 이날 5조원을 추가한 약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안을 내놨다.

재무개선 추진 안에는 서울 여의도의 남서울본부를 매각하고 한전 아트센터를 비롯한 타 사옥의 임대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 자구단위계획과 연계한

매각이나 제안공모 등을 통해 매각가치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또 임직원의 성과급과 급여 등을 일부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과 전력그룹사 2직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을 전액 반납하고, 3직급 직원은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들도 임금 반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전 노조에 임금 반납 동참을 요청해 둔 상태다.

이밖에도 조직, 인력 효율화와 경상경비 절감, 전력설비 건설 시기 조정, 전력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타개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근원적 체질개선을 위해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대책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같은 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2021년 5월 취임한 정 사장은 정치권의 압박과 재정 악화 영향 등으로 임기(2024년 5월)를 1년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정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 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 차질, 금융시장 왜곡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당장 한전이 발표한 1분기 결산 결과, 영업손실은 6조177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32조원의 영업손실에 올 1분기 손실을 더해 총 38조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전기를 받아 벌어들인 수익보다 전기를 만들거나 사들이는 금액이 더욱 커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

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이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kWh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상에 따른 한전의 적자 해소 정도에 따라 인상 폭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회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만약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법” 대비 못해”

전문인력 부족·비용 부담 등 이유... ‘겸직 인력’으로 대응 67.3%

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상황에 대해 ‘대응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이 57.7%에 달했다.

2022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 기업들이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는 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전문인력 부족’(51.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과도한 비용 부

담’(32.4%), ‘법률 자재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등 순이었다.

안전보건업무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법 시행 전과 현재 모두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으로 대응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6.0%로, 현재 안전보건 업무 인력에 대해 ‘대응 계획 중’(5.8%)이거나 ‘계획이 없다’(1.0%)는 응답은 총 6.8% 수준이었다.

안전보건 전담부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전담부서가 없다’(3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임법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하 복수응답)으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했으며, ‘면역규정 신설’(23.1%), ‘근로자에 법적 준수의무 부여’(23.1%), ‘안전보건 구축 인증제도 도입’(8.7%) 등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6.2%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을 꼽았다. 이어 ‘명확한 준수지침 제공’(32.7%), ‘컨설팅·교육 지원’(12.5%), ‘사전점검 및 현장지도 강화’(11.5%), ‘금융·세제 지원’(9.6%) 등 순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지역 기업들은 인력 및 자금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와 기업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조달청, 조달우수 ‘선우건설화학’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노배성)은 최근 ‘2023년 지역 우수 조달업체’로 선정된 담양 소재 선우건설화학(주)(대표 윤채원)를 방문해 조달청장 표창을 전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선우건설화학은 폴리우레아도 막방수제 전문 생산업체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진 물품 선정 및 Q마크 인증, 특허 등 다양한 공인 인증을 획득한 전남도 유망중소기업이다.

혁신제품인 차열성능이 우수한 초속경 폴리우레아도막방수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해 전국 각 학교의 체육관 및 강당 등 벽체 보수공사에 적합, 조달업무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조달업체로 선정됐다.

노배성 청장은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품질향



상에 매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며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첨단-구미 국가산단 경영자협 교류회 개최

2013년 이후 매년 2회 이상 교류 정보 공유 채널 가동 등 상생 협력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박인철)는 지난 12일 구미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양재호)와 ‘광주첨단-구미 국가산업단지 교류회’를 개최했다.

양 협의회는 2013년 이후 11년째 매년 2회 이상 교류회를 열고 있으며, 공동 비즈니스 발굴 및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첨단산단 경영자협의회 정순임 부회장은 두 산단 간 지속적인 교류와 연계활동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해 지속적인 매출 향상을 이루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구미산단 경영자협의회 김영관 상근부회장은 향후 완제품 판매 및 제품 개발에 있어 두 지역 기업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정보 공유 채널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산업 분야 영호남의 이해 폭을 증진시켰고 협력 기회的基础를 쌓아왔다”면서 “앞으로의 10년은 가시적인 성과창출과 비즈니스 관계 확대 등을 통해 산업분야의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출금리 1%p 오를 때 소비 0.49% 감소”

한국금융연구원 위원 밝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소비가 0.4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과 소비의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표본 자료를 이용해 추정해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평균적으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94%포인트 높아진다.

DSR은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DSR이 1%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은, 소득의 1%를 원리금을 갚는 데 추가로 써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KCB 자료 분석 결과 DSR이 1%p 높아지면 분기별 소비가 0.06~0.44% 범위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금리 1%p 인상으로 대출자의 현금 흐름 악화는 분기별 소비를 0.49%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DSR 상승 폭이 급여소득자보다 컸으며, 그로 인해 소비 감소율도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 대비 소비를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제약은 특히 자영업자, 저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삼성 무풍에어컨 점유율 10년 연속 1위

1분기 43.6% 기록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무풍에어컨이 인기를 끌면서 삼성전자의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14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점유율(수량 기준)은 48.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에어컨 시장에서 2013년 43.6%의 점유율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37.6%)을 제외하고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작년(41.0%)까지 10년 연속 1위다. 특히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무풍에어컨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2배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구매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모델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무풍에어컨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탠드형, 벽걸이형, 가정용 시스템



무풍에어컨 모델이 삼성스토어 매장에서 무풍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에어컨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창문형 에어컨 최초로 무풍 냉방 기능을 도입한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윈도우핏’도 출시해 전체 에어컨 라인업을 무풍으로 완성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 제품이며, 가정용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다. 창문형 에어컨 무풍에어컨 윈도우핏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무풍에어컨 갤러리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10% 냉방 효율이 더 높은 에너지 특화 모델도 출시했다.

삼성전자 무풍에어컨은 무풍 냉방 사용 시 최대(MAX) 냉방 대비 최대 90% 소비전력을 절약할 수 있고, 스마트싱스 에너지의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추가로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GGM 상생봉사단’ 무등산 일대 정화활동

광주글로벌모터스 ‘GGM 상생봉사단’(단장 오순철) 단원과 가족 등 90여명은 지난 13일 오전 광주시 동구 중심사 입구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날 참가자들은 중심사 입구 상가와 공영주차장, 계곡 하천 등 무등산 일대에서 잡초 뽑기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올해 3월 출범한 GGM 상생봉사단은 직원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헌혈 행사, 여름 장마철 수해 복구 지원, 겨울철 소외계층 연탄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6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0	19	23	28	33	1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81,114,010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2,346,509	82
3	5개 숫자일치					1,166,734	3,679
4	4개 숫자일치					50,000	163,488
5	3개 숫자일치					5,000	2,567,588